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74	[국가] 경당에서 수련하는 청년	고구려 (장수왕)
74	[국가] 지방의 22담로에 파견되는 왕족	백제 (무령왕)
74	[국가] 황룡사 구층 목탑의 축조를 건의하는 승려	신라 (선덕여왕)
74	[연도] 관산성 전투	554년
74	[연도] 백제 의자왕 대야성 함락	642년
74	[연도] 진흥왕이 대가야를 공격하여 복속시켰다.	562년
74	[국가] 능산리 고분군, 송산리 고분군	백제
74	[국가] 일길찬, 사찬 등의 관등이 있었다.	신라
74	[국가] 지방 장관으로 육살, 처려근지 등이 있었다.	고구려
74	[국가] 왕족인 부여씨와 8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백제
74	[왕] 삼국 통일 달성	문무왕
74	[왕]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지증왕
74	[왕]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흥왕
74	[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74	[왕]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74	[왕]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문무왕
74	[국가] 왜에 칠지도를 만들어 보냈다.	백제 (근초고왕)
74	[국가]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신라 (신문왕)
74	[국가]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후고구려 (궁예)
74	[국가] 서적 관리, 주요 문서 작성 등을 위해 문적원을 두었다.	발해
74	9산문 / 가지산문	선종
74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도교
74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였다.	선종
74	신선 사상을 기반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하였다.	도교
74	화왕계를 지어 국왕에게 바침	설총
74	산동반도에 적산법화원을 창건	장보고
74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	강수
74	격황소서를 지어 세상에 이름을 떨침	최치원
74	구법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	혜초
74	신라인 / 청해진 설치	장보고
74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고구려 부흥운동
74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889년
74	좌·우사정이 6부를 나누어 관할하였다.	3성 6부 (발해)
74	[국가]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신라
74	[국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신라
73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살수대첩 (612)
73	사찬 시덕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기벌포전투 (676)
73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동천왕
73	장문휴가 자사 위준이 관할하는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발해 무왕 (732)
73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나당동맹 (648)
73	연개소문은 왕의 조카인 장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	연개소문 정변 (642)
73	검모잡,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
73	[나라]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백제
73	[나라] 지방 장관으로 육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고구려
73	[나라]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대가야
73	[나라]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설치하였다.	신라 (진덕여왕)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73	[나라]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며, 수로왕과 형제이다.	대가야
73	[왕]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근초고왕
73	[왕]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
73	[왕]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의자왕
73	[왕]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성왕
73	[왕]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근초고왕
73	[왕]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침류왕
73	[왕]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개토대왕
73	[연도] 김흠돌 등 진골 세력이 숙청되었다.	681년
73	[연도] 김현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822년
73	[왕]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545)
73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백제부흥운동
73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선덕여왕
73	혜공왕 피살 이후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신라 하대 시기
73	[나라] 영광탑, 이불병좌상	발해
73	[나라]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발해
73	[나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중정대가 있었다.	발해
73	내신좌평, 내두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고이왕 (백제)
73	왕과 귀족의 자제로 구성되며 낭가, 풍월도, 국선도라고 불림	화랑도 (신라)
73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고구려
73	정사암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백제
73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일상생활 등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신라
73	[인물] 국호를 마진, 태봉이라 하였다.	궁예 (후고구려)
73	오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의 직을 받았다.	견훤
73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궁예 (후고구려)
73	경주의 사십관으로 임명되었다.	신라 경순왕 (김부)
73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신라 지증왕
72	[나라] 임신서기석	신라
72	[나라] 칠지도	백제 (근초고왕)
72	[나라] 10월 제천 행사 동맹	고구려
72	[나라]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화백 회의	신라
72	[연도]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676년
72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장수왕
72	계백이 이끈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하였다.	백제 멸망
72	[연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642년
72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신라 진덕여왕
72	도살성 / 금현성 전투	신라 진흥왕
72	평양성을 공격한 백제의 왕	근초고왕
72	[지역]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가 도읍으로 삼았다.	한성
72	[지역] 문주왕 때 천도한 곳이다.	공주
72	[지역]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있다.	공주
72	[지역] 왕궁리 오층 석탑이 있다.	익산
72	[지역] 백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되었다.	부여
72	[나라]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고구려 (소수림왕)
72	[나라]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신라
72	[나라] 국경 지역인 양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고려
72	[나라] 정사암에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였다.	백제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72	[나라] 쌍영총	고구려
72	[나라] 진대법으로 알아보는 빈민 구제	고구려 (고국천왕)
72	[나라] 덩이쇠 수출을 통해 본 낙랑과의 교역	가야
72	[나라] 울산항을 통한 아라비아 상인들과의 교류	통일신라
72	[나라] 촌락문서 / 서시와 남시	통일신라
72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발해
72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개토대왕
72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편성하였다.	통일신라 (신문왕)
72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통일신라 (원성왕)
72	[나라] 정혜 공주 무덤 (굴식 돌방 무덤 : 고구려 양식 계승)	발해
72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어요.	신라 신문왕
72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어요.	신라 진성여왕
72	김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어요.	신라 선덕여왕
72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어요.	백제 부흥 운동
72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신라 경순왕
72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백제 무왕
72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웠다.	견훤 (후백제)
72	광평성을 비롯한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궁예
72	[인물] 경애왕 습격 /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에 대승을 거둠	견훤
72	내부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불국사 삼층 석탑
72	1층 탑신에 당의 장수 소정방의 명으로 새긴 글이 있다.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72	자장의 건의로 건립되었다.	황룡사 9층 목탑
72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유명하였다.	발해
72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불리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
72	전국에 9주 5소경 설치	신문왕
72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	신라 법흥왕
71	수로왕이 건국한 나라	금관가야
71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
71	6좌평이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였다.	백제
71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 회의가 있었다.	신라
71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무령왕)
71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금관가야
71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혜초
71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자장
71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원효
71	사군이충 등을 포함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원광
71	풍수지리 사상이 반영된 송악명당기를 저술하였다.	도선대사
71	수나라에 군사 요청을 한 결사표를 지었다.	원광
71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성왕
71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침류왕
71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고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다.	근초고왕
71	국호를 신라로 확정 / 순장 금지	지증왕
71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하였다.	법흥왕
71	백제 비유왕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눌지왕
71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지증왕
71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문무왕
71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귀족들을 숙청하였다.	신문왕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71	[건축] 무영탑 / 불국사 대웅전 앞뜰 서쪽에 세워짐	불국사 3층 석탑
71	[연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612년
71	[연도]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648년
71	[연도]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642년
71	[연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였다.	642년
71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고구려 부흥운동 (670~)
71	발해가 천자의 조정을 원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등주(登州)를 습격하였다.	무왕
71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지증왕
71	양길을 쫓아내고 송악을 도읍으로 하였다.	궁예
71	문무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71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궁예
71	9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도의 선사
71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신라 원성왕
71	청해진을 거점으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다.	신라 흥덕왕 (장보고)
71	청방인문표를 지어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강수 (신라)
70	[왕]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장수왕
70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평양성 전투 (4c)
70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개로왕 (5c)
70	신라가 왜를 격퇴하기 위해 고구려에 군사를 청하였다.	신라 내물왕
70	[왕] 나제동맹을 강화하였다.	백제 동성왕 / 신라 소지왕
70	[왕] 고구려 울령 반포 / 태학 설립 / 전진에 사신을 파견	소수림왕
70	[왕]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소수림왕
70	[왕]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미천왕
70	[왕]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개토대왕
70	[연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612년
70	강서대묘 '사신도' / '산수무늬 벽돌' 관련 종교	도교
70	일체유심조 / '대승기신론소' 저술	원효
70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혜초
70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자장
70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원효
70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원광
70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의상
70	대조영이 세운 나라	발해
70	[왕]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편성하였다.	신라 신문왕
70	[나라] 정사암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백제
70	[인물]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갖추었다.	궁예
70	[나라]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마련하였다.	발해
70	[나라]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신라
70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 제시 / 당 유학 6두품 신하	최치원
70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대구화상, 위홍
70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였다.	강수
70	격황소서를 지어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최치원
70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를 저술하였다.	원측
70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계를 저술하였다.	설총
70	[왕] 이름 김경신 / 선덕왕 이후 즉위	원성왕
70	국호를 태봉을 바꿈	후고구려 (궁예)
70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킴	백제 의자왕 (윤충)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70	흑치상지, 임존성에서 부흥군을 이끔	백제 부흥운동
70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	신라 경순왕 김부
70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발해
69	김정희가 '금석과안록'에서 고증한 순수비를 건립한 왕	진흥왕
69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69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원성왕
69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
69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문무왕
69	대아찬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69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	무령왕
69	사신을 보내 중국 남조의 양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다.	무령왕
69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
69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의자왕
69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근초고왕
69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였다.	성왕
69	[연도] 을지문덕 살수대첩	612년
69	[연도] 안시성 전투	645년
69	[연도]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660년
69	[연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642년
69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고구려 동천왕
69	[연도] 기벌포 전투	676년
69	[연도] 고구려 부흥 운동	670~674년
69	[연도] 백제 부흥 운동	660~663년
69	촌락의 인구 현황, 토지의 종류와 면적 등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촌락문서 (통일신라)
69	[나라]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통일신라
69	[나라] 대조영 / 북국	발해
69	정사암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백제
69	지방의 여러 성에 육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고구려
69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일상생활 등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신라
69	서적 관리, 주요 문서 작성 등을 위해 문적원을 두었다.	발해
69	솔빈부의 말을 특산물로 수출하였다.	발해
69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통일신라
69	[지역] 고구려비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충주
69	[시대]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신라 하대
68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됨 / 왕검성	위만
68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진흥왕 (신라)
68	내신 좌평 등 여섯 명의 좌평을 거느렸다.	고이왕 (백제)
68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위만
68	지방의 여러 성에 육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고구려
68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왕릉	무령왕릉
68	성왕이 전사한 장소	관산성
68	사신도 벽화가 남아있는 무덤이 발견된 장소	부여 능산리 고분군
68	수부(首府)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된 장소	익산 왕궁리 유적
68	[연도] 안시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당군을 물리쳤다.	645년
68	[연도]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660년
68	[연도]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562년
68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봉하였다.	고구려 부흥 운동 (670~674)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68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백제 부흥 운동 (660~663)
68	[왕] 원광이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진평왕
68	[왕]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법흥왕
68	[왕]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진성여왕
68	[왕]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68	[왕]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선덕여왕
68	김수로왕에 의해 건국된 나라	가야
68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두었다.	신라
68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
68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고구려
68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가야
68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백제
68	고국원왕의 아들 / 태학 설립	소수림왕
68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
68	서안평을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미천왕
68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개토대왕
68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고국천왕
68	영광탑 / 이불병좌상	발해
68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무령왕
68	전국에 9주 5소경을 설치	통일신라
68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두었다.	신라
68	불국사 삼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	무구정광대다라니경
68	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배웠다.	고구려
67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중흥을 꾀했다.	성왕
67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다.	성왕
67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
67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근초고왕
67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의자왕
67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침류왕
67	현존하는 신라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탑 / 벽돌 모양의 돌로 다듬어 쌓음	분황사 모전석탑
67	흑치상지가 당의 유인궐에게 항복하다.	백제 부흥 운동 (660~663)
67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하다	고구려 부흥 운동 (670~674)
67	[연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치다.	612년
67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우다.	백제 부흥 운동 (660~663)
67	개로왕이 복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다.	장수왕
67	[연도] 신라 수군이 기벌포에서 승리하다.	676년
67	[승려] 화엄학 / 관음 신앙	의상
67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	자장
67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노력	원효
67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 저술	원적
67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 편찬	각훈
67	감은사 완공 / 만파식적	신문왕
67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	진성여왕
67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	신문왕
67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 창설	진평왕
67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 사용	법흥왕
67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을 설치	지증왕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67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신문왕
67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지증왕
67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하였다.	경덕왕
67	장보고가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였다.	흥덕왕 (신라 하대)
67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67	[국가] 문왕 / 정효 공주	발해
67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마련하였다.	신라
67	정사암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백제
67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통일신라 (원성왕)
67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발해
67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발해 무왕
67	[연도] 신승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927년
67	[연도] 왕건이 일리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936년
67	김헌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통일신라 헌덕왕
67	[국가]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	발해
66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광개토대왕
66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진흥왕
66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장수왕
66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무령왕
66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개토대왕
66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미천왕
66	[연도] 익산 미륵사 창건	백제 무왕 (639년)
66	[연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612년
66	[세기]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근초고왕 (4세기)
66	[연도]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결사 항전하였다.	의자왕 (660년)
66	[세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지증왕 (6세기)
66	[연도]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하였다.	문무왕 (676년)
66	교역로 청해진 / 법화원	통일신라
66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발해
66	조세 수취를 위해 3년마다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다.	통일신라
66	선덕왕의 조카인 김주원을 옹립하는데 실패한 아들이 일으킨 반란	김헌창의 난
66	녹읍 폐지를 명하는 국왕	신라 신문왕
66	연꽃무늬 / 온돌 유적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연관성
66	완산주를 도읍으로 국가를 세움 / 아들 신검 등에 의해 유폐	견훤
66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신라 원성왕
66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 침류왕
66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견훤
66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궁예
66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진흥왕
66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에 참여하는 장인	신라 선덕여왕
66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	발해
66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의상
66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 설치	신라
65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	호우명 그릇
65	[왕]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한 백제왕	근초고왕
65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유리왕
65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미천왕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65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소수림왕
65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고국천왕
65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동천왕
65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 부흥 운동을 벌였다.	고구려 부흥운동
65	[연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612년
65	[연도] 매소성 전투	675년
65	[연도] 백강 전투	663년
65	해동성국 / 5경 15부 62주	발해
65	정사암 회의를 개최하였다.	백제
65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신라
65	육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을 두었다.	고구려 부흥운동
65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
65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후고구려
65	원효의 아들 / '이두'를 체계적으로 관리	설총
65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대구화상, 위홍
65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최치원
65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원광
65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지었다.	강수
65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인 화왕계를 집필하였다.	설총
65	[시대]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병사	신라하대 (장보고)
65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한 승려	의상 (신라 문무왕)
65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혜초
65	[나라]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
65	[나라] 동시전이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신라 지증왕
65	[지역]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된 장소	전북 김제
64	정사암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다.	백제
64	[국가] 경당 설치 / 제가회의	고구려
64	골품에 따른 신분 차별이 엄격하였다.	신라
64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고구려 (고국천왕)
64	왕족의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백제
64	[인물] 금관가야 마지막 왕의 후손 / 신라의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	김유신
64	[인물]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검모잠
64	[인물]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였다.	장문휴
64	[인물]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다.	김유신
64	[인물]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시독 (신라)
64	중앙 관부를 22부로 정비 /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성왕 (백제)
64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
64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성왕
64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의자왕
64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근초고왕
64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	개로왕
64	[연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612년
64	솔빈부의 말 / 고구려 유민 출신	발해
64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신라 (지증왕)
64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발해
64	[시대] 청해진 설치	장보고 (신라 하대)
64	원광이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신라 진평왕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64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선덕여왕
64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신문왕
64	최치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진성여왕 (신라 하대)
64	송악을 근거지 / 국호 마진, 연호 무태 / 수도를 철원으로 옮김	궁예
64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견훤
64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지증왕
64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궁예
64	당항성, 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신라
64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
64	관료전이 폐지되고 녹읍이 지급되었다.	신라 경덕왕
64	9주 5소경	통일신라 (신문왕)
64	지방 장관으로 육살, 처려근지 등이 있었다.	고구려
64	[인물]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지었다.	강수
63	거란도, 일본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하였다.	발해
63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고구려
63	정사암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백제
63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신라
63	부여씨 / 5부 5방	백제
63	처려근지 도사 / 5부 / 60개의 주현	고구려
63	[연도] 계백 황산벌 전투	660년
63	민정문서 / 촌락문서	신라
63	낙랑군와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가야
63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
63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발해
63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신라
63	6두품 출신 / 격황소서 저술	최치원
63	화왕계를 지어 국왕에게 조언하였다.	설총
63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였다.	강수
63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최치원
63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장보고
63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혜초
63	[왕] 황룡사 건축 / 국사 편찬	진흥왕
63	[왕]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지증왕
63	[왕] 예성강 이북에 패강진을 설치하였다.	선덕왕
63	[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63	[왕]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진흥왕
63	[왕]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
63	연호 대흥 / 딸 정효 공주	문왕
63	[왕] 복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장수왕
63	지린성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대조영
63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였다.	광개토대왕
63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겨 체제를 정비하였다.	문왕
63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확립하였다.	발해 선왕
63	[시대]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신라 하대
63	[인물] 완산주를 도읍으로 지정 / 경애왕 죽음 / 금산사에 유포	후백제 견훤
63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백제 무왕
63	김흠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신라 신문왕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63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후고구려 궁예
63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견훤
63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발굴	불국사 3층 석탑
63	지방 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상수리 제도가 실시되었다.	신라
63	독서삼품과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였다.	신라 원성왕
63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신라 지증왕
63	[지역]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다.	전북 익산
62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	금관가야
62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	신라
62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 시행	고국천왕
62	평양으로 수도를 옮김	장수왕
62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	법흥왕 (신라)
62	22담로에 왕족 파견	무령왕 (백제)
62	고흥의 서기 편찬	근초고왕 (백제)
62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	소수림왕
62	전진으로부터 불교 수용 / 태학 설립	소수림왕
62	금제 사리봉영기 발견된 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62	복신과 도침이 부여품을 왕으로 추대	백제 부흥 운동 (660~663)
62	[연도]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	676년 (나당전쟁)
62	검모잠이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고구려 부흥운동 (670~)
62	[결과] 계백의 황산벌 전투	백제 멸망 (660)
62	[나라] 고구려 문화 계승 / 당 문화 수용 / 말갈 문화 / 서역과의 교류	발해
62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	후백제 견훤
62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 양성	발해
62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	통일 신라
62	화백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 논의	신라
62	내신좌평, 위사좌평 등 6좌평의 관제 마련	백제
62	[나라] 진모수	백제 무령왕릉
62	김흠돌의 반란 진압 / 국학 설치 / 9주 정비 (지방 통치 체제)	신문왕
62	마립간이라는 칭호 처음 사용	내물왕 (내물마립간)
62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	지증왕
62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	진흥왕
62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 공인	법흥왕
62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 폐지	신문왕
62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지었다.	혜초
62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최치원
62	청해진을 중신으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장보고
62	9산 선문 중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도의선사
62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설총
62	산동반도에 법화원 창건	장보고
62	신라 문무왕 때 청방인문표를 보내어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강수 (당나라)
62	[나라]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발해
62	[나라]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신라 (지증왕)
62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신라 하대
61	16품계, 웅진성	백제
61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신라
61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고구려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61	지방 장관으로 옥살, 치려근지 등이 있었다.	고구려
61	위화부, 영객부 등의 중앙 관서를 설치하였다.	신라
61	왕족인 부여씨와 8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백제
61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광개토대왕
61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개토대왕
61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소수림왕
61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미천왕
61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고국천왕
61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연개소문
61	대승기신론소 저술 / 무애가	원효대사
61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혜초
61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자장
61	왕명으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를 지었다.	원광
61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각훈
61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원효대사
61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	백제 개로왕
61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였다.	고구려 부흥운동 (670~674)
61	[연도] 윤춘이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642년
61	[연도]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648년
61	[연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642년
61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에 맞서 싸웠다.	백제 부흥 운동 (663)
61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61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지증왕
61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신문왕
61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법흥왕
61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	발해
61	당항성, 영암이 국제 무역항을 번성	통일신라
60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금관가야
60	유학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발해
60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무령왕
60	화백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신라
60	수로왕이 건국 / 김해 고분군 유적	금관가야
60	흑치상지가 임존산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백제 부흥운동
60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였다.	고구려 (612)
60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고구려 부흥운동
60	관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고구려 동천왕
60	[연도] 의자왕이 윤춘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642년
60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백제 멸망 (660)
60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장수왕
60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미천왕
60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고국천왕
60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개토대왕
60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소수림왕
60	신라의 실직주성을 빼앗음 / 북위에 사신 파견 / 백제 도성 함락	장수왕
60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발해
60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편성하였다.	신라
60	내신 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정비하였다.	백제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60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신라
60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백제
60	영광탑 / 정효 공주묘 / 석등 / 해동성국	발해
60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원효
60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원광
60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혜초
60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을 집필하였다.	각훈
60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의상
60	부석사를 창건한 승려	의상
60	김흠돌의 난 진압 / 감은사 완공 / 9주 설치	신문왕
60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진흥왕
60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지증왕
60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흥왕
60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60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원성왕
60	국호 태봉 / 철원으로 천도	궁예
60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 (백제)
60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견훤
60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고려 왕건 / 견훤
60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충목왕
60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궁예
60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녹읍 (신라)
60	[지역] 후백제 동고산성 / 전동 성당	전주
60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	국학 (통일신라)
60	최고(最古) 목판 인쇄물 /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 / 통일신라 경덕왕 (751년)	무구정광대다라니경
60	흑수 말갈 정벌 / 대문예	발해 무왕
60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	신라 신문왕
60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백제 성왕
60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신라 문무왕
60	고구려 유민을 모아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발해 대조영
60	장문휴를 보내 등주를 공격	발해 무왕
60	신라를 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후백제 견훤
60	태봉 건국 / 도읍 철원	궁예
59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광개토대왕
59	복신과 승려 도침이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세웠다.	백제 부흥 운동
59	영류왕을 시해하고 대막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 / 당의 침략 격퇴	연개소문
59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막아냈다.	을지문덕
59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였다.	연개소문
59	등주를 선제 공격하여 당군을 격파하였다.	장문휴 (발해 무왕)
59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김유신 (신라)
59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고구려 부흥 운동 (검모잠/고연무)
59	보병/기병 50명으로 신라를 습격했으나 복병에 의해 제압되었다.	관산성 전투 (성왕 전사)
59	좌사정, 우사정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3성 6부 (발해)
59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 (백제)
59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근초고왕 (백제)
59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성왕 (백제)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59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	개로왕 (백제)
59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침류왕 (백제)
59	삼국 통일을 달성한 왕	문무왕 (통일신라)
59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진흥왕
59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문무왕
59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
59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원성왕
59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선덕여왕
59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가야
59	[시대] 을산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였다.	통일신라 말기
59	[시대] 장보고 / 청해진	통일신라 말기
59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
59	해동성국 / 고구려 계승	발해
59	9서당 10정을 설치하였다.	신라
59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후고구려
59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발해
59	육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을 두었다.	고구려
59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무령왕 (백제)
59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발해
59	당항성, 영암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통일 신라
59	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으로 삼은 지역	전북 전주
58	금관가야를 정복하였다.	법흥왕 (신라)
58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장수왕 (고구려)
58	백제 동성왕과 동맹을 맺고 고구려 장수왕에 대항하였다.	소지왕 (신라)
58	진흥왕이 정복한 나라	대가야
58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나라	고구려
58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된 나라 (왕)	백제 (무령왕)
58	중앙 관제가 3성 6부로 정비된 나라	발해 (문왕)
58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이사금인 나라	신라
58	고령 지역이 연명의 중심지로 성장한 나라	대가야
58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고구려 (고국천왕)
58	[연도]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	645년
58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의자왕 (백제)
58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백제 부흥운동
58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책봉되었다.	고구려 부흥운동
58	매소성 전투(675) () 전투(675) 통일신라 (676)	기벌포
58	9주 5소경을 설치한 나라	통일신라
58	조세 수취를 위해 촌락문서를 작성하였다.	통일신라
58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군 등에 수출하였다.	가야
58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우경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삼국시대
58	수도에서 도시부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시장을 관리하였다.	백제 (22부 중 하나)
58	[나라] 문왕 / 정효공주	발해
58	정사암 회의를 개최하였다.	백제
58	최고 행정 관서로 집사부를 두었다.	신라
58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발해
58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신문왕
58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무왕 (발해)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58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후고구려
58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진성여왕
58	후백제군의 침입에 고려군에 지원 요청한 신라 왕	경순왕 (신라)
58	선종 불교 유행 / 9산선문	통일신라 말기
58	최치원 시무 10조	진성여왕
58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선덕여왕
58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하였다.	경덕왕
58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저술하였다.	성덕왕
58	원광이 세속5계를 제시하였다.	진평왕
58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발해
57	[불상]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 일본 교토 고류사의 불상과 닮음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57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축조한 백제 무덤	무령왕릉
57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 (백제)
57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성왕 (백제)
57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무령왕 (백제)
57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근초고왕
57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침류왕
57	시무 10조 / 천령군 (함양군) 태수로 부임	최치원
57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를 저술하였다.	승려 원측 (신라)
57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였다.	강수 (신라)
57	한자의 음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설총
57	신라 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갈상탑기를 남겼다.	최치원
57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십문화쟁론을 지었다.	원효
57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의자왕 (백제)
57	흑치상지가 별부장 사타상여를 데리고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복신과 호응하였다.	백제 부흥 운동
57	신라와 당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하여 소부리 벌판으로 나아갔다.	백제 멸망 (나당연합군 공격)
57	9주 / 서원소경, 남원소경 설치	신문왕 9주 5소경 (통일 신라)
57	금관가야가 멸망하였다.	법흥왕 (신라)
57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지증왕 (신라)
57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설치되었다.	진흥왕 (신라)
57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신문왕 (통일신라)
57	인재 등용을 위한 독서삼품과가 실시되었다.	원성왕 (통일신라)
57	정당성 / 중대성 / 선조성	3성 6부 (발해)
57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발해
57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광개토대왕
57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신문왕 (통일신라)
57	개국,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진흥왕 (신라)
57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온조 (백제)
57	완산주에 나라를 세웠다.	견훤 (후백제)
57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다.	견훤 (후백제)
57	귀순한 김순식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였다.	태조왕건 (사성정책)
57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충목왕
57	청해진을 근거지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장보고
57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치나, 서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궁예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57	[지역] 장수왕 때 국내성 에서 천도 하여 도읍으로 삼은 곳	평양
57	백제와 연합하여 금성 을 공격 하였다.	가야/왜
57	마립간 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내물왕 (신라)
57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 을 실시하였다.	고국천왕 (고구려)
57	목지국 을 압도하고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고이왕 (백제)
57	골품 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신라 (골품제)
56	[고구려] 불교 를 수용하고,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소수림왕
56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 으로 옮겼다.	장수왕
56	태학 을 설립 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소수림왕
56	서안평 을 공격 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미천왕
56	연가 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구려
56	신라 에 군대 를 파견 하여 왜 를 격퇴 하였다.	광개토대왕
56	백제 성왕이 도읍으로 정한 지역 정림사지 오층 석탑, 능산리 고분군,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사비 (부여)
56	김흠돌 이 반란을 꾀하다 처형되었다.	신문왕 (통일신라)
56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 을 함락 시켰다.	의자왕 (백제)
56	살수 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을지문덕 (고구려)
56	대조영 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 에서 건국 하였다.	발해
56	검모잠 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고구려 부흥운동
56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 을 시행하였다.	고국천왕 (고구려)
56	무애가 를 지었다.	원효
56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 를 세웠다.	의상
56	화엄일승법계도 를 지어 화엄 사상 을 정리하였다.	의상
56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 을 저술하였다.	혜초
55	자장의 건의 로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선덕여왕 (신라)
55	거칠부 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신라)
55	왕의 장인인 김흠돌 이 난 을 일으켰다.	신문왕 (통일신라)
55	체징 이 9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 을 개창하였다.	문성왕 (통일신라 말기)
55	김헌창 은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헌덕왕 (통일신라 말기)
55	위나라 관구검 의 공격으로 환도성 이 함락 되었다.	고구려
55	고구려가 첫번째 도읍 으로 삼은 곳이다.	졸본
55	돌무지덧널무덤 으로 축조되었다.	신라 무덤
55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비(창녕비) 를 세웠다.	진흥왕 (신라)
55	매지권 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	무령왕릉 (백제)
55	장수왕의 공격으로 웅진 으로 천도 하였다.	문주왕 (백제)
55	신라를 공격하다 관산성 전투 에서 전사하였다.	성왕 (백제)
55	익산에 미륵사 가 창건되었다.	무왕
55	흑치상지 가 임존성 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백제 부흥운동
55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 를 통해 불교 가 수용되었다.	침류왕
55	지방을 통제하기 위하여 22담로 에 왕족이 파견되었다.	무령왕
55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 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백제 멸망 직전
55	을파소 의 건의로 처음 마련되었다.	진대법 (고국천왕)
55	원화(源花) 에 기원을 두고 있다.	화랑도 (신라)
55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골품제 (신라)
55	검모잠 이 안승 을 임금으로 삼고, 신라와 협조하여 당에 맞섰다.	고구려 부흥운동
55	왜에 칠지도 를 만들어 보냈다.	근초고왕 (백제)

회차	중세의 한국사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55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문왕 (발해)
55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궁예
55	9주 5소경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신문왕 (통일신라)
55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원효
55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의상
55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혜초
55	신라 성덕여왕 때 인도와 중앙아시아, 아랍을 순례하고 그 행적을 적은 여행기	왕오천축국전 (혜초)
54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유적을 알아본다.	대가야
54	[신라] 병부를 설치하고 올령을 반포하였다.	법흥왕
54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지증왕
54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54	[신라]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
54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원성왕
54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진흥왕
54	보장왕의 서자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왕으로 임명되었다.	고구려 부흥 운동
54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의상
53	백가의 난을 평정하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무령왕 (백제)
53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하였다.	무령왕 (백제)
53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무왕 (백제)
53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근초고왕 (백제)
53	[백제]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침류왕 (백제)
53	사비로 천도하고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성왕 (백제)
53	평양성을 함락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평양성 전투)	근초고왕
53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시켰다.	장수왕
53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피살시켰다.	진흥왕
53	고구려와 교섭 실패 후 당과 연합하였다. (나 당 연합)	진덕여왕
53	보장왕의 서자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고구려 부흥운동
53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백제 부흥운동
53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백제 부흥운동
53	백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 패배했다.	백제 부흥운동
53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원효